

보도시점 2026. 10. 2.(금) 11:00
< 10.3(토) 조간 >

배포 2026. 10. 2.(금)

CPTPP 관련 제조업 분야 간담회 개최

- 산업부, 업계와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 청취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0.2(금)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가입 검토 관련 업종별 영향 점검 및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CPTPP 가입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농림수산업계,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갈 예정인바, 이번 간담회는 제조업계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 참석한 전기전자 분야 5개 협단체는 CPTPP 가입시 멕시코와의 신규 FTA 체결 효과는 물론, 기술규정의 투명성, 시험·인증 부담 완화 등 수출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를 밝히면서도,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대일본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 **참석 단체** :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반도체산업협회, 배터리산업협회, 전기산업진흥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회의를 주재한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미중 무역 갈등 등 급변하는 통상 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자 FTA 체결국 수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CPTPP 가입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및 유사입장국과 연대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가입 검토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제조업 여타 업종은 물론, 서비스, 디지털, 금융 업계 등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CPTPP 가입의 산업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통상협정교섭관 통상협정협상상품과	책임자	과 장	고장원 (044-203-5790)
		담당자	사무관	김유정 (044-203-5795)
		담당자	주무관	권영준 (044-203-5796)